

전남대 의예과 420점...조선대 의예과 416점

6월 모의평가 국·영·수·탐 모두 어려웠다...지원 가능 점수는?

서울대 인문 404점·고려대 393점...수도권 393점~408점 가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49점...영어 난이도 가중 1등급 5.74%

6월 수능 모의평가 실재점 결과 전남대와 조선대의 지원가능 점수는 각각 420, 416점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404점, 자연계열 408점,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393점, 자연계열 40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 주관으로 실시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재점 결과 분석이다.

전남대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41점 내외로 예측됐다. 영어교육과 366점, 국어교육과 363점, 행정학과 361점, 경영학부 357점, 정치외교학과 351점, 국어국문학과 349점이었다.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351점, 수학 미지정(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모두 지원가능) 학과는 346점이었었다. 의예과 420점, 치의학과 413점, 약학부 410점, 수의예과 405점, 전기공학과 390점, 간호학과 364점, 수학과 363점이었었다.

조선대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95점 안팎으로 점쳐졌다. 영어교육과 337점, 국어교육과 328점이었었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416점, 치의예과 411점, 약학과 408점, 간호학과 347점, 수학교육과 327점이었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406점, 광주교대는 367점, 지난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408점이었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404점 내외, 자연계열 408점 안팎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 I+II, II+II 조합)을 충족한 학생을 표본에 의한 자료이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393점 내외, 자연계열

40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6월 9일 치러진 모평 실재점 결과 국어·수학·영어·탐구 모든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전년

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다. 수학은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던 전년도 수능(1등급 비율 6.25%)보다 난이도가 가중돼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5.74%로 감소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같은 난이도가 유지된다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 II'가 85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 I'이 67점으로 가장 낮아 18점 차

이가 났다. 서울대는 전년도부터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표준점수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고3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실재점 분석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해 시교육청 유튜브,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빛고를 꿈트리 진로진학 상담 밴드에 오는 15일 온라인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일학습병행 잡마켓 행사

'광주권역 일학습병행 잡마켓' 행사가 1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000여명이 부스를 돌아다니며 각종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ina@

조선대, 브랜드 평판 '전국 10위'

조선대학교가 대학교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에서 전국 10위, 호남권 1위를 기록했다.

12일 조선대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대학교 브랜드 2022년 7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선대는 전국 100개 대학 중 10위를 차지했다.

호남지역 대학교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소비자 참여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 지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학들의 브랜드 평판을 순위로 매긴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은 "앞으로도 전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진 대학으로 목표를 두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엑스포역 짐 배송 서비스 코레일, 전국 4곳 시범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여수엑스포역 등 전국 4개 역에서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철도역 짐 배송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내면 역에서 시내 숙소 등으로 짐을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오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역, 부산역, 강릉역, 안동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여수엑스포역에서는 '짐이지' 업체가 짐 배송을 해 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짐 크기에 따라 7~10만원으로 나뉘며, 숙소로 짐을 배송하고 보관까지 해 준다. 배송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진으로 받을 수 있다. 역 배송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역 서비스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출까지 받아서...

광주 주부 보이스피싱 6억 피해

경찰이 50대 가정주부가 6억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부 A씨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5차례에 걸쳐 총 6억원 상당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의 휴대전화에 '고가의 골프채가 결제됐다'는 허위 메시지를 전송, A씨의 전화를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다'고 A씨를 속여 현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

5·18기념재단 원순석 신임 이사장 선출

원순석(71·사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이자 '5·18기념재단'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

5·18기념재단은 12일 열린 5·18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원 신임 이사장을 재단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원 이사장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점과 그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해 해 온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

원 이사장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대 농과대학 학생회장을 맡았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소요 및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다.

원 이사장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헌신했다. 박관현열사기념사업회장,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5·18기념재단은 5·18희생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일부와 국민성금, 해외동포 성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다. 1994년 창립이후 ▲기념 및 추모사업 ▲국제연대 사업 ▲진상규명사업 ▲학술·교육·문화 사업 ▲장학 사업 ▲홍보·출판 사업 ▲광주인권상, 문학상, 언론상 등 시상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미래 대비하기 위해 교원 축소 안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방침과 관련,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정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박순애 교육부장관과 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실 당 교사 정원을 3~4명까지 늘릴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 '이 정책의 성패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교원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박 장관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제안이다. 그동안 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에 대해 강력 반대해왔다. 제9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장관의 첫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인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